

<http://dx.doi.org/10.17703/JCCT.2022.8.1.105>

JCCT 2022-1-12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과 의사소통능력, 회복탄력성이 임상실습적응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Empathy, Communication skills and Resilience on the Adaptation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College Student

김미영*, 변은경**

Mi Young Kim*, Eun Kyung Byun**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공감능력, 의사소통능력, 회복탄력성이 임상실습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효율적인 임상실습 교육을 위한 학습전략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참여자는 B시의 3개 대학의 간호대학생 24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수,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t-test, ANOVA, 피어슨 상관계수,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공감능력은 3.49 ± 0.44 점, 의사소통능력 3.86 ± 0.85 점, 회복탄력성 3.63 ± 0.56 점, 임상실습적응은 3.63 ± 0.52 점이었으며, 대상자의 임상실습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공감능력, 의사소통능력, 회복탄력성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39.9%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공감능력, 의사소통능력과 회복탄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

주요어 : 공감능력, 의사소통능력, 회복탄력성, 임상실습

Abstract This study was attempted to provide basic data for preparing a learning strategy for effective clinical practice education by examining the effects of empathy, communication ability, and resilience on adaptation to clinical practice for nursing students. Participants in this study were 244 nursing students from 3 universities in B city. Data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SPSS 21.0 program with real number, percentage, mean, standard deviation,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subjects' empathy ability was 3.49 ± 0.44 points, communication ability 3.86 ± 0.85 points, resilience 3.63 ± 0.56 points, and clinical practice adaptation 3.63 ± 0.52 points. Factors affecting adaptation to clinical practice were empathy, communication ability, and resilience, and the explanation power was 39.9%. Through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necessary to prepare an educational program to improve empathy, communication ability and resilience that affect the adaptation to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Key words : Empathy, Communication skills, Resilience, Clinical Practice

*정희원, 경남정보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제1저자)
**정희원, 경남정보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교신저자)
접수일: 2021년 12월 15일, 수정완료일: 2022년 1월 5일
게재확정일: 2022년 1월 8일

Received: December 15, 2021 / Revised: January 5, 2022
Accepted: January 8, 2022
*Corresponding Author: byunek@hanmail.net
Dept. of Nursing, Kyungnam College of Information & Technology, Korea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간호교육은 이론적 지식과 함께 임상실습교육이 중요하다며, 특히 임상실습교육은 임상에서 환자를 대상으로 실제적, 잠재적 문제를 다루기 위한 준비과정이다[1].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교육을 통해 간호에 대한 지식, 기술, 태도 및 신념과 가치, 윤리적 표준 등을 내면화하고 이를 행동의 일부로 발전시키며 간호사가 되기 위한 준비가 이루어지게 된다[2]. 최근 의료현장은 간호대상자의 높은 건강요구 수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양질의 간호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3], 이를 수용하기 위해 간호교육현장에서도 과학적 지식과 함께 임상실무능력을 갖춘 간호사 배출을 위한 교육적 방안의 모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4].

그러나 상당수 간호대학생이 임상실습 과정에서 축적된 스트레스로 임상실습에 대한 흥미와 학습능력의 저하를 경험한다[5].

임상현장은 고객중심의 의료서비스가 강조되면서 환자의 권리가 중요시되고 있어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시 대상자 접촉 기회의 감소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에 대한 스트레스는 더욱 가중되고 있으며, 졸업 후 신규간호사가 되었을 때는 간호대상자와의 치료적 관계형성에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6]. 공감능력은 인간을 깊이 이해하고 다양한 훈련과 교육을 통해 향상될 수 있는 능력으로[7] 양질의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간호대상자와 치료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8]. 임상현장에서 다양한 대인관계를 형성해야 하는 간호대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역량으로 공감능력이 향상될 경우 임상적응 능력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8].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과 관련이 있는 요인 중 하나가 의사소통능력인데[9], 의사소통능력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의사소통 수단을 통하여 상호작용하는 능력을 의미하여 간호교육의 핵심으로 예비 간호사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중요한 능력이다[10]. 특히, 간호대학생의 경우 임상실습 현장에서 다양한 대상자들과 신뢰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의사소통 능력이 요구된다[11].

회복탄력성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이를 극복하고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으로 이를 통하여 갈등이나 역경 상황에서 유연하게 대처하며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삶 전반에서 긍정적인 작용을 하게 된다[12]. 특히, 학업이나

임상실습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는 간호대학생에게 어려운 상황을 성공적으로 극복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며[13], 회복탄력성의 강화를 통한 성공적 경험은 간호대학생의 적응능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14]. 즉, 간호대학생에게 회복탄력성은 어려운 임상실습 상황을 극복하여 최대의 기능을 수행하는 개인적인 발달과정으로[15], 회복탄력성은 임상실습 과정에서 공감능력과 의사소통능력과 함께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소이다.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적응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임상실습 적응과정이나 경험에 관한 연구[16, 17]이거나, 임상실습 현장의 다양한 현상에 초점을 맞춘 요인들에 대한 조사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18, 19].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적응을 위해서는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적응하는 능력인 회복탄력성의 함양[9]과 대상자에 대한 이해와 공감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이 중요한 것을 감안할 때, 이러한 요소들의 임상실습 적응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적응수준을 파악하고 임상실습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여 효율적인 임상실습 교육을 위한 학습전략 마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 의사소통능력, 회복탄력성이 임상실습적응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공감능력, 의사소통능력, 회복탄력성, 임상실습적응 정도를 파악한다.
-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공감능력, 의사소통능력, 회복탄력성, 임상실습적응의 차이를 파악한다.
- 3) 대상자의 공감능력, 의사소통능력, 회복탄력성, 임상실습 적응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4) 대상자의 공감능력, 의사소통능력, 회복탄력성이 임상실습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 의사소통능력, 회복탄력성이 임상실습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B시에 소재한 3개 대학교의 간호학과 학과장에게 연구목적, 설문지를 설명하고 자료수집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 임상실습경험이 있는 간호학과 4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 연구참여자의 권리, 익명성 보장 등에 대해 설명하였고, 참여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을 알리고 동의서에 서명 후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 수는 G*Power 3.1.3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표본 수를 산출한 결과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효과크기 .15, 예측변수 13개로 하여 산출한 결과 필요 대상자 수는 189명이었다. 자료수집은 2021년 6월 1일에서 6월 30일까지 진행되었다. 탈락율을 고려하여 설문지 250부를 배부하여 최종 244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3. 연구도구

1) 공감능력

공감능력은 타인의 심리상태를 추론하는 인지적 능력과 정서적 상태에 대해 파악하여 대리 경험할 수 있는 정서적 자질을 의미하며[20], 본 연구에서는 Davis[20]가 개발한 대인관계 반응성 척도를 Park[21]이 수정 보완 도구이다. 이 도구는 총 28문항으로 관점취하기 7문항, 상상하기 7문항, 공감적 관심 7문항, 개인적 고통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공감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부정문항인 9문항은 역문항 처리하여 공감능력을 계산하였다. Kim[22]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80$ 이었으며,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5$ 로 나타났다.

2) 의사소통능력

의사소통능력은 자신의 의사를 적절하게 표현하거나 타인과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 자신의 관점을 명확하게 기술하는 능력을 의미하며[23], 본 연구에서는 Rubin[23]의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Scale(ICC)를 Hur[24]가 수정 보완한 GICC(Global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y Scale)이다. 이 도구는 총 15문항으로 5점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Hur[24]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72$ 이었으며,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0$ 로 나타났다.

3) 회복탄력성

회복탄력성은 위기나 역경을 극복하여 이전의 안정적인 상태로 돌아가려는 추상적인 인지개념으로[25], 본 연구에서는 Connor와 Davidson[26]이 개발한 회복탄력성 도구(CD-RISC)를 Kim[27]이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25문항으로 강인성 9문항, 내내력 8문항, 낙관성 4문항, 지지력 2문항, 영성 2문항의 5개 영역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회복탄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Kim[7]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83$ 이었으며,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3$ 으로 나타났다.

4) 임상실습적응

임상실습적응은 간호대학생들이 병동의 환경에 적응하여 실습기간 동안 간호대학생으로서의 역할수행에 의미하며[28], 본 연구는 Yi[28]가 개발한 임상실습 적응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14문항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실습 적응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Yi[8]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86이었으며, 본 연구의 Cronbach's $\alpha=.80$ 으로 나타났다.

4.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 방법은 SPSS Win 21.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2) 대상자의 공감능력, 의사소통능력, 회복탄력성, 임상실습적응은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을 산출하였다.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공감능력, 의사소통능력, 회복탄력성, 임상실습적응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t-test와 ANOVA를 이용하고 사후 분석을 위해 Scheffe's test로 분석하였다.

4) 대상자의 공감능력, 의사소통능력, 회복탄력성, 임상실습적응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5) 대상자의 공감능력, 의사소통능력, 회복탄력성이 임상실습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III.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21세 이하 34.8%, 22~23세 37.7%, 24세 이상 27.5%이고 성별은 여성이 82.4%였다. 종교는 무교가 66.8%였으며, 성격은 '복합적'이 45.1%, '내성적' 30.3%, '외향적' 24.6%였다. '가족과 함께 거주' 형태가 70.1%였으며, 경제수준은 '중'이 82.8%이고 건강상태는 ' 좋음'이 54.1%이고 임상실습만족도는 ' 좋음'이 54.1%, 임상실습을 위한 사전지식준비는 '보통'이 63.9%로 나타났다(Table 3).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N=244)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Age (year)	≤21	85	34.8
	22-23	92	37.7
	≥24	67	27.5
Sex	Female	201	82.4
	Male	42	17.2
Religion	No	163	66.8
	Yes	81	33.2
Personality	Extrovert	60	24.6
	Introverted	74	30.3
	Complex	110	45.1
Residence type	With family	171	70.1
	Alone	54	22.1
	With friend	19	7.8
Economic status	Good	20	8.2
	Moderate	202	82.8
	Bad	22	9.0
Health status	Good	128	54.1
	Moderate	106	43.4
	Bad	11	4.5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Good	132	54.1
	Moderate	106	43.4
	Bad	6	2.5
Pre-preparation for clinical practice	Good	81	33.2
	Moderate	156	63.9
	Bad	7	2.9

표 2. 대상자의 공감능력, 의사소통능력, 회복탄력성, 임상실습 적응의 정도

Table 2. Degree of Empathy, Communication Skills, Resilience, Clinical Practice Adaptation(N=244)

Variable	M±SD	Min	Max
Empathy	3.49±.44	2.54	5.00
Communication skills	3.86±.55	2.40	5.00
Resilience	3.63±.56	1.60	5.00
Clinical practice adaptation	3.62±.52	1.57	5.00

2. 대상자의 공감능력, 의사소통능력, 회복탄력성, 임상실습적응의 정도

대상자의 공감능력은 평균 3.49±.44점이며, 의사소통능력은 평균 3.86±.55점으로 나타났고 회복탄력성은 평균 3.63±.56점이고 임상실습적응의 평균은 3.62±.52점이었다(Table 2).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공감능력, 의사소통능력, 회복탄력성, 임상실습적응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공감능력은 '성별'(t=2.587, p=.010)과 '건강상태'(F=3.449, p=.033)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증에서 건강상태는 ' 좋음'이 '보통'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사소통능력은 '성격'(F=9.499, p<.001), '경제적 수준'(F=6.302, p=.002), '건강상태'(F=7.389, p=.001), '임상실습만족도'(F=4.312, p=.014)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증에서 성격은 '복합적, 외향적' 성격이 '내성적' 성격보다 높았으며, 경제적 수준은 ' 좋음' 이 '보통' 보다 높았다. 건강상태는 ' 좋음' 이 '보통'보다 높았으며 임상실습만족도는 ' 좋음' 이 '보통' 보다 높게 나타났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회복탄력성은 '성격'(F=8.660, p<.001), '경제적 수준'(F=5.177, p=.006), '건강상태'(F=9.832, p<.001), '임상실습만족도'(F=8.162, p<.001), '임상실습을 위한 사전지식준비'(F=5.688, p=.004)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적응은 '성별'(t=1.978, p=.049), '건강상태'(F=6.660, p=.002), '임상실습만족도'(F=15.186, p<.001), '임상실습을 위한 사전지식준비'(F=8.236,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4. 대상자의 공감능력, 의사소통능력, 회복탄력성, 임상실습적응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공감능력, 의사소통능력, 회복탄력성, 임상실습적응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공감능력(r=.357, p<.001), 의사소통능력(r=.569, p<.001), 회복탄력성(r=.572, p<.001)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회복탄력성은 공감능력(r=.274, p<.001), 의사소통능력(r=.669, p<.001)과 의사소통능력은 공감능력(r=.429, p<.001)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Table 4).

표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공감능력, 의사소통능력, 회복탄력성, 임상실습적응의 차이
 Table 3. Difference of Empathy, Communication Skills, Resilience, and Clinical Practice Adaptation(N=244)

Characteristics		Empathy				Communication skills			
		M±SD	t/F	p	Scheffé	M±SD	t/F	p	Scheffé
Age (year)	≤21	3.49±.46				3.90±.52			
	22-23	3.47±.37	.161	.851	-	3.7±.55	1.112	.331	-
	≥24	3.50±.51				3.89±.57			
Sex	Female	3.52±.43	2.587	.010	-	3.89±.55	1.817	.070	-
	Male	3.33±.46				3.72±.54			
Religion	No	3.45±.44	-1.658	.099	-	3.85±.56	-.291	.772	-
	Yes	3.55±.45				3.87±.54			
Personality	Extrovert ^a	3.51±.44	.371	.690	-	4.05±.50	9.499	<.001	a,c>b
	Introverted ^b	3.50±.49				3.66±.57			
	Complex ^c	3.49±.44				3.89±.55			
Residence type	With family	3.48±.46	.675	.510	-	3.85±.52	1.565	.211	-
	Alone	3.46±.37				3.80±.61			
	With friend	3.60±.44				4.06±.55			
Economic status	Good ^a	3.45±.64	.651	.522	-	4.22±.59	6.302	.002	a>b
	Moderate ^b	3.50±.42				3.84±.53			
	Bad ^c	3.40±.45				3.64±.56			
Health status	Good ^a	3.55±.47	3.449	.033	a>b	3.98±.53	7.389	.001	a>b
	Moderate ^b	3.40±.40				3.48±.51			
	Bad ^c	3.50±.28				3.76±.50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Good ^a	3.52±.46	1.372	.256	-	3.95±.49	4.312	.014	a>b
	Moderate ^b	3.45±.40				3.75±.59			
	Bad ^c	3.28±.44				3.69±.64			
Pre-preparation for clinical practice	Good	3.53±.47	.764	.467	-	3.94±.51	2.642	.073	-
	Moderate	3.46±.43				3.83±.56			
	Bad	3.53±.31				3.49±.61			
Characteristics		Resilience				Clinical practice adaptation			
		M±SD	t/F	p	Scheffé	M±SD	t/F	p	Scheffé
Age (year)	≤21	3.62±.54	1.178	.310	-	3.56±.47	.282	.754	-
	22-23	3.59±.60				3.60±.53			
	≥24	3.72±.53				3.63±.56			
Sex	Female	3.64±.55	.761	.447	-	3.65±.49	1.978	.049	-
	Male	3.57±.58				3.48±.65			
Religion	No	3.61±.58	-.944	.346	-	3.61±.54	-.495	.621	-
	Yes	3.87±.54				3.64±.47			
Personality	Extrovert ^a	3.84±.49	8.660	<.001	a,c>b	3.71±.53	1.253	.287	-
	Introverted ^b	3.44±.61				3.60±.55			
	Complex ^c	3.66±.56				3.58±.49			
Residence type	With family	3.62±.55	1.245	.290	-	3.60±.50	2.044	.132	-
	Alone	3.63±.59				3.61±.55			
	With friend	3.83±.58				3.85±.59			
Economic status	Good ^a	4.01±.53	5.177	.006	a>b,c	3.72±.60	.493	.611	-
	Moderate ^b	3.60±.54				3.60±.50			
	Bad ^c	3.61±.56				3.63±.62			
Health status	Good ^a	3.78±.53	9.832	<.001	a>b	3.73±.52	6.660	.002	a>b
	Moderate ^b	3.48±.51				3.49±.48			
	Bad ^c	3.42±.87				3.55±.57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Good ^a	3.75±.53	8.162	<.001	a>b,c	3.75±.53	15.186	<.001	a>b,c
	Moderate ^b	3.52±.54				3.52±.55			
	Bad ^c	3.14±.80				3.14±.80			
Pre-preparation for clinical practice	Good ^a	3.80±.54	5.688	.004	a>b	3.79±.52	8.236	<.001	a>b,c
	Moderate ^b	3.56±.56				3.55±.50			
	Bad ^c	3.45±.41				3.20±.49			

표 4. 대상자의 공감능력, 의사소통능력, 회복탄력성, 임상실습적응과의 관계

Table 4. Correlation between Empathy, Communication Skills, Resilience, Clinical Practice Adaptation(N=244)

Characteristics	Empathy	Communication skills	Resilience	Clinical practice adaptation
	r(p)			
Empathy	1			
Communication skills	.429(<.001)	1		
Resilience	.274(<.001)	.669(<.001)	1	
Clinical practice adaptation	.357(<.001)	.569(<.001)	.572(<.001)	1

표 5. 대상자의 임상실습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Table 5. Affected Factors of Clinical Practice Adaptation(N=244)

Variable	B	SE	β	t	p
Constant	11.916	3.353		3.553	<.001
Empathy	.085	.032	.144	2.623	.009
Communication skills	.241	.063	.273	3.835	<.001
Resilience	.181	.035	.349	5.218	<.001
Adj.R ² =.399, F=54.826(p<.001)					

5. 대상자의 임상실습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임상실습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 공감능력, 의사소통능력, 회복탄력성을 설명변수로 하였다. 회귀분석의 기본가정을 확인한 결과 잔차의 분포는 정규성을 만족하였고, 독립변수 간의 다중 공선성을 검정하였을 때, 공차한계가 .487-.815로 0.1 이상이었고, 분산팽창인자(VIF)는 1.811-2.053로 나타나 모두 10보다 낮았으므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잔차의 독립성 검정인 Durbin-Watson의 통계량이 1.939로 2에 가까워 잔차의 자기상관성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다중회귀 분석 결과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54.826, p<.001). 대상자의 임상실습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공감능력(β =.144, p=.009), 의사소통(β =.273, p<.001), 회복탄력성(β =.349, p<.001)이었으며, 수정된 결정계수(R²)는 .399로 설명력은 39.9%로 나타났다.

IV. 논 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효율적인 임상실습 교육을 위한 학습전략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대상자의 공감능력, 의사소통능력, 회복탄력성이 임상실습적응의 정도를 살펴본 결과, 공감능력은 3.49±.44점이며, 의사소통능력은 3.86±.55점, 회복탄력성은 3.63±.56점, 임상실습적응은 3.63±.52점으로 나타났다. 타 연구와 비교함에 있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구를 중심으로 5점 척도의 평균으로 비교하였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29]의 연구에 공감능력은 3.54±.36점으로 유사하였으며, Jang[8]의 연구에서 공감능력은 하위 영역별 측정이 이루어졌으며 점수는 3.08점~3.60±점이 었다. 의사소통능력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Lee [30]의 연구에 의사소통능력은 3.41±.63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Cho, Seo[9]의 연구에서 환산한 점수를 비교한 결과 3.22점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Kim, Yoo[31]의 연구에서 회복탄력성은 3.78점이었으며, Park, Song[32]의 연구에서 환산한 점수를 비교한 결과 3.72점으로 나타났다. 임상수행능력은 Kim[29]의 연구에서는 3.45±.44점으로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Lee [30]의 연구에서는 3.30±.43점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비교 대상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연구결과에 있어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공감능력, 의사소통능력,

회복탄력성, 임상실습적응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공감 능력은 '성별'과 '건강상태'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는 ' 좋음'이 '보통'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Kim[29]의 연구에서도 성별과 임상실습 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성별의 경우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으나, 임상실습 만족도는 본 연구결과와 차이를 보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임상실습 만족도를 3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나, 선행연구에서는 5점 척도로 측정하면서 연구결과의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보여 이후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사소통능력은 '성격', '경제적 수준', '건강상태', '임상실습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성격은 '복합적, 외향적' 성격이 내성적 성격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경제적 수준은 ' 좋음'이 '보통'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건강상태는 ' 좋음'이 '보통'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임상실습만족도는 ' 좋음'이 '보통'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Kim[33]의 연구에서도 경제적 수준, 전공만족도가 유의한 차이를 보여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회복탄력성은 '성격', '경제적 수준', '건강상태', '임상실습만족도', '임상실습을 위한 사전지식준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ee[30]의 연구에서는 전공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건강상태와 임상실습만족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반면, Kim[33]의 연구에서는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회복탄력성이 높은 결과로 차이를 보여, 이에 대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적응을 살펴 보면 '성별', '건강상태', '임상실습만족도', '임상실습을 위한 사전지식준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을수록[29][33]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29][34] 임상실습에 잘 적응한다는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임상실습을 위한 사전지식 준비정도가 우수하고 이 결과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을수록 임상실습에 대한 적응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간호대학 남학생의 임상실습적응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개인적 건강상태 유지에 대한 교육 및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임상실습만족도, 임상실습을 위한 사전지식준비 등 실습교과목의 사전교육 및 임상실습적응을 높일 수 있는 현장체험, 핵심술기 실습 등의 프로그램 적용이 요구된다.

대상자의 공감능력, 의사소통능력, 회복탄력성, 임상실습적응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임상실습적응은 공감능력, 의사소통능력, 회복탄력성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선행연구 결과 Lee[30], Kim[34], Lee, Kim[35]과 유사하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의 경우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공감능력과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의사소통능력이 임상실습의 적응과정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상자의 임상실습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공감능력, 의사소통능력, 회복탄력성을 변수로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공감능력, 의사소통능력, 회복탄력성으로 나타났다. 공감능력과 회복탄력성이 높고, 의사소통능력이 좋을수록 임상실습 적응능력이 높음을 시사하며,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적응에 대한 설명력은 39.9%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Lee[30]의 연구에서 20.1%, Park, Song[36]의 연구에서 46.4%로 차이를 보였다.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적응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작용하며, 주요 변수에 따라 임상실습적응의 설명력에서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다. 반복연구를 통해 임상실습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를 찾아내고 이러한 변수를 중심으로 한 임상실습적응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임상실습적응은 더욱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V. 결 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 의사소통능력, 회복탄력성, 임상실습적응의 정도를 파악하고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여 효율적인 임상실습교육을 위한 학습전략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시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공감능력, 의사소통능력, 회복탄력성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의 교육에서 중요한 부분인 임상실습 교육의 효과를 위해서는 임상실습적응이 중요하며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일부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 의사소통능력, 회복탄력성의 관계를 파악하는 연구결과로 전체 간호대학생에 확대 해석하는 데는 주의가 필요하다. 후속 연구를 통해 연구대상자의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인

공감능력, 의사소통능력, 회복탄력성을 바탕으로 임상
실습적응을 높일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제안한다.

셋째,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적응을 높이기 위해서
는 다양한 요인들을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References

- [1] J.H. Song, and M.W. Kim, "Study on clinical education for nursing in hospitals in Korea",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9, No. 3, pp. 251-264, 2013.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3.19.2.25>
- [2] E.J. Howkins, and A. Ewens, "How students experience professional socialis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Studies*, Vol. 36, No. 1, pp. 41-49, 1999. DOI: [https://doi.org/10.1016/S0020-7489\(98\)00055-8](https://doi.org/10.1016/S0020-7489(98)00055-8)
- [3] E.J. Ji, "Influence of nursing professionalism, empathic ability on communication ability in senior nursing student",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 16, No. 3, pp. 1685-1697, 2014.
- [4] H.J. Jang, and Y.K. Kwag, "Affecting factors on clinic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4, No. 9, pp. 4380- 4387, 2013.
- [5] K.M. Cho, and S.E. Lee, "Correlation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eaching effectiveness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in clinical nursing education", *Kyung-In Studies*, Vol. 1, No. 2, pp. 123-135, 2002.
- [6] M.S. Yoo, Y.S. Kim, M.S. Hwang, and J.A. Ahn, "Analysis of self-esteem,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problem-solving capacity in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Korean Journal of Health Communication*, Vol. 7, No. 1, pp. 18-27, 2012.
- [7] J.Y. Lee, "The effect of ego states and life positions on empathy in nursing students", *Korean Journal of Stress Research*. Vol. 20, No. 2, pp. 113-122, 2012.
- [8] S.Y. Jang, "The effect of empathy on resilience of nursing students", *Korean Journal of Health Communication*, Vol. 12, No. 2, pp. 211-221, 2017. DOI: <http://dx.doi.org/10.15715/kjhcom.2017.12.2.211>
- [9] J.H. Cho, and K.W. Seo, "Influence of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compassion competence on resilience of clinical nurs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Wellness*, Vol. 13, No. 4, pp. 51-60, 2018.
- [10] Y.J. Oh, "The development and effectiveness of the communication empowerment program for nursing students based on the theory of transfer of learning", Doctoral dissertation, Korea University, Seoul, 2008.
- [11] J.W. Park, and M.S. Choi, "A study on self consciousness,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interpersonal relation disposition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Vol. 18, No. 3, pp. 351-360, 2009.
- [12] W.Y. Shin, M.G. Kim, and J.H. Kim, "Developing measures of resilience for Korean adolescents and testing cross, converg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Studies on Korean Youth*, Vol. 18, No. 3, pp. 105-131, 2009.
- [13] J.Y. Lee, "Type D personality and caring abilities in nursing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resili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a University, Pocheon, 2019.
- [14] E.M. Kim, Y.H. Yang, H.Y. Lee, and M.Yu, "Factors influencing subjective happiness in Korea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22, No. 3, pp. 294-303, 2016.
- [15] L.J. Thomas, and S.H. Revell, "Resilience in nursing students: an integrative review", *Nurse Education Today*, Vol. 36, pp. 457-462, 2016. DOI :[10.1016/j.nedt.2015.10.016](https://doi.org/10.1016/j.nedt.2015.10.016).
- [16] S.Y. Kang, "The social adjustment process of nursing students in the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Qualitative Research*, Vol. 1, pp. 9-19, 2016.
- [17] K.H. Yang, G.Y. Ko, J.O. Ko, R. Kim, J.Y. Kim, Y.Y. Kim,...E.Y. Jin, "Meaning of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in nursing junior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Research*, Vol. 1, No. 1, pp. 59-74, 2017.
- [18] S.Y. Kim, and Y.S. Shin, "Factors influencing adaptation on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9, No. 9, pp. 234-242, 2018. DOI : <https://doi.org/10.5762/KAIS.2018.19.9.234>.
- [19] J.J. Nam, and M.R. Park, "Impact on department adaptation of field practice adaptation, college adaptation, and awareness of death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9, No. 10, pp. 300-312, 2018. DOI : <https://doi.org/10.5762/K>

- AIS.2018.19.10.300.
- [20]M.H. Davis, “A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individual differences in empath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10, No. 85, pp. 1-19, 1980.
- [21]S.H. Park, “Empathy”, Seoul: Hakjisa, 1994, 274-300.
- [23]R.B. Rubin, E.E. Graham, and J.T. Mignerey, “A longitudinal study of college students’ communication competence”, *Communication Education*, Vol. 39, No. 1, pp. 1-14, 1990. DOI: <https://doi.org/10.1080/03634529009378783>
- [24]G.H. Hur,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a global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scale”,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Vol. 46, No. 6, pp. 380-408, 2003.
- [25]F.Y. Lin, JR. Rong, and T.Y. Lee, “Resilience among caregivers of children with chronic conditions: a concept analysis”, *Journal of Multidisciplinary Healthcare*, Vol. 6, pp. 323-333, 2013. DOI : <https://doi.org/10.2147/JMDH.S46830>
- [26]KM. Conner, and J.R. Davidson, “Development of a new resilience scale: the Connor-Davidson resilience scale (CD-RISC)”, *Depression and Anxiety*, Vol. 18, No. 2, pp. 76-82, 2003. DOI : <https://doi.org/10.2147/JMDH.S46830>
- [27]D.J. Kim, “Relationship of nurses’ clinical career, resilience, work environment and intention to stay”,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 Hee University, Seoul, 2020.
- [28]Y.J. Yi,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the e-learning orientation program for nursing student’s adapting to clinical practicum”,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Adult Nursing*, Vol. 19, No. 4, pp. 593-602, 2007.
- [29]J.A. Kim, “The effects of clinical practice stress, stress coping and empathy on clinical competency among Nursing Students”, Maste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Daegu, 2016.
- [30]J.K. Lee, “The relationships among clinical competence, clinical practice stress, communication skill & nunchiin nursing student”, Master’s thesis,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Jinju 2015.
- [31]J.K. Kim, and K.H. Yoo, “Effects of self-esteem on nursing students’ resilience”, *Korean Society of Muscle and Joint Health*, Vol. 26, No. 3, pp. 261-269, 2019. DOI : <https://doi.org/10.5953/JMJH.2019.26.3.261>
- [32]E.M. Park, and YS. Song, “Predictors of emotional labor and resilience on clinical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25, No. 3, pp. 357-365, 2019.
- [33]M.J. Kim, “Effects of emotional intelligence, resilience, and post-traumatic growth on communication skill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Industrial Convergence*, Vol. 16, No. 3, pp. 23-32, 2018.
- [34]H.S. Yoo, “Relationship among stress of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and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 17, No. 2, pp. 1129-1144, 2015.
- [35]O.S. Lee, and E.J. Kim, “The moderating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ransition shock and adaptation on clinical practice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7, No. 11, pp. 387-394, 2019.
- [36]E.M. Park, and Y.S. Song, “Predictors of emotional labor and resilience on clinical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25, No. 3, pp. 357-365, 2019.

※ 본 연구는 2021년도 경남정보대학교 간호학과 발전기금 교수연구지원비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